

201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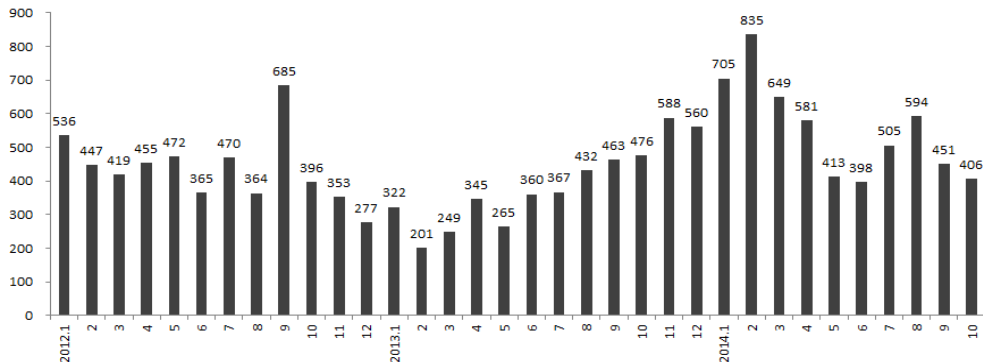
동향분석팀

I. 2014년 노동시장 개관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54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하반기 경기가 호전되면서 취업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면이 2014년에도 이어져 2월 835천 명 증가라는 이례적인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여 6월 저점(398천 명)을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유지하였고, 이후 두 달 연속 큰 폭의 증가를 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규모가 작아지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고용률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2014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0.7%p 증가한 60.2%를 기록하였다(그림 1, 2 참조). 이와 같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남성(281천 명)과 여성(273천 명)에서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고, 고용률도 남성 0.7%p, 여성 0.8%p 증가하였다.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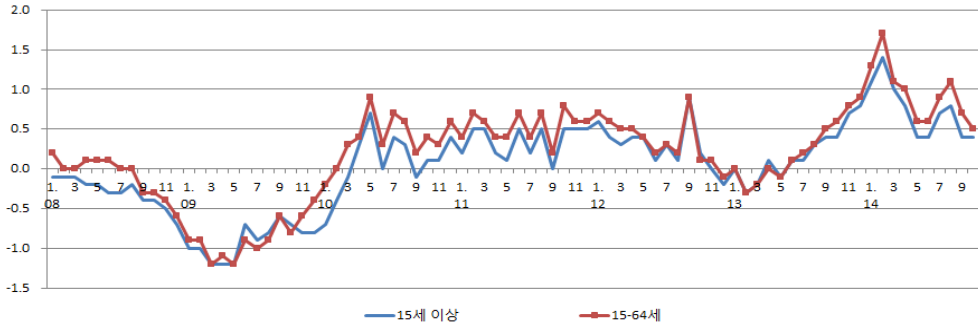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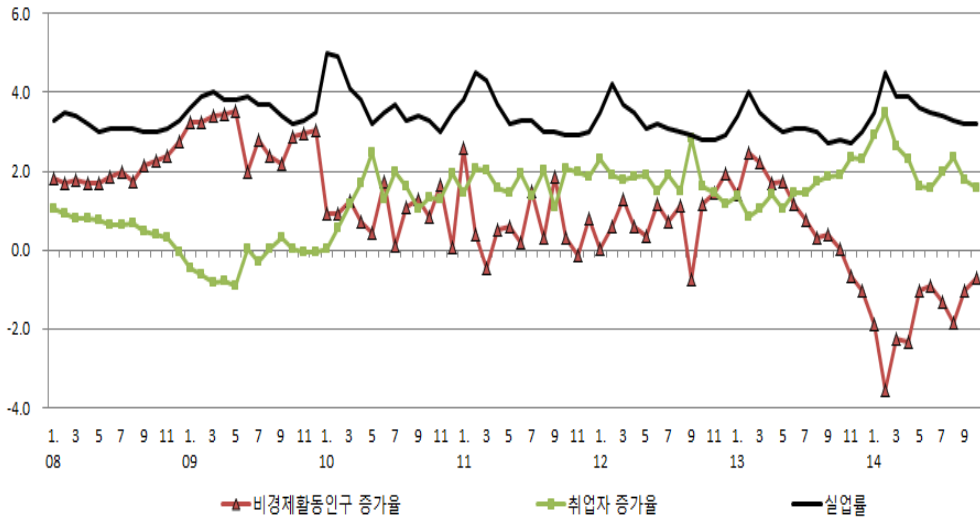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 | | 연 도 | | | | 1~10월 평균 | | | |
|--------------------|--------|--------|--------|--------|--------|----------------|----------------|----------------|----------------|
|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1. 1~10월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15 세 이 상 | 생산가능인구 | 40,590 | 41,052 | 41,582 | 42,096 | 41,014 | 41,536 | 42,063 | 42,474 |
| | (증가율) | (1.2) | (1.1) | (1.3) | (1.2) | (1.1) | (1.3) | (1.3) | (1.0) |
| | 경제활동인구 | 24,748 | 25,099 | 25,501 | 25,873 | 25,099 | 25,522 | 25,852 | 26,537 |
| | (증가율) | (1.5) | (1.4) | (1.6) | (1.5) | (1.4) | (1.7) | (1.3) | (2.7) |
| | 취업자 | 23,829 | 24,244 | 24,681 | 25,066 | 24,222 | 24,683 | 25,031 | 25,584 |
| | (증가율) | (1.4) | (1.7) | (1.8) | (1.6) | (1.7) | (1.9) | (1.4) | (2.2) |
| | (증가수) | (323) | (416) | (436) | (386) | (407) | (461) | (348) | (554) |
| | 참가율 | 61.0 | 61.1 | 61.3 | 61.5 | 61.2 | 61.4 | 61.5 | 62.5 |
| | (남성) | (73.0) | (73.1) | (73.3) | (73.2) | (73.2) | (73.4) | (73.2) | (74.1) |
| | (여성) | (49.4) | (49.7) | (49.9) | (50.2) | (49.7) | (50.0) | (50.2) | (51.4) |
| | 고용률 | 58.7 | 59.1 | 59.4 | 59.5 | 59.1 | 59.4 | 59.5 | 60.2 |
| | (남성) | (70.1) | (70.5) | (70.8) | (70.8) | (70.5) | (70.8) | (70.7) | (71.4) |
| | (여성) | (47.8) | (48.1) | (48.4) | (48.8) | (48.1) | (48.5) | (48.8) | (49.6) |
| | 실업자 | 920 | 855 | 820 | 807 | 877 | 839 | 821 | 953 |
| 실업률 | 3.7 | 3.4 | 3.2 | 3.1 | 3.5 | 3.3 | 3.2 | 3.6 | |
| (남성) | (4.0) | (3.6) | (3.4) | (3.3) | (3.7) | (3.4) | (3.4) | (3.6) | |
| (여성) | (3.3) | (3.1) | (3.0) | (2.9) | (3.2) | (3.1) | (2.9) | (3.6) | |
| 비경활 | 15,841 | 15,953 | 16,081 | 16,223 | 15,915 | 16,015 | 16,212 | 15,936 | |
| (증가율) | (0.9) | (0.7) | (0.8) | (0.9) | (0.8) | (0.6) | (1.2) | (-1.7) | |
| 15 ~ 64 세 | 참가율 | 65.9 | 66.2 | 66.4 | 66.6 | 66.2 | 66.5 | 66.5 | 67.8 |
| | (남성) | (77.1) | (77.4) | (77.6) | (77.6) | (77.4) | (77.7) | (77.5) | (78.6) |
| | (여성) | (54.5) | (54.9) | (55.2) | (55.6) | (54.9) | (55.2) | (55.5) | (57.0) |
| | 고용률 | 63.3 | 63.8 | 64.2 | 64.5 | 63.8 | 64.3 | 64.3 | 65.3 |
| | (남성) | (74.0) | (74.5) | (74.9) | (74.9) | (74.4) | (75.0) | (74.8) | (75.6) |
| (여성) | (52.7) | (53.1) | (53.5) | (53.9) | (53.1) | (53.5) | (53.8) | (54.9)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취업자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령화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 역시 2013년 1~10월 평균대비 1.0%p 증가해 65.3%를 기록했고, 남성은 0.8%p 증가한 75.6%, 여성은 1.1%p 증가한 54.9%를 나타내었다.

한편 2014년에는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취업뿐만 아니라 실업으로의 진입이 크게 증가해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2.2%, 실업률은 3.6%로 각각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고 실업자도 95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해 2014년 1~10월 평균 62.5%로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하였다.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가파른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014년 1~10월 평균 1.7% 감소하였고, 절대 규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 지표는 전체적으로 2013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추세가 둔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기저를 반영한 내년 노동시장 성과가 2014년과 유사하게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I. 2014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취업자 증가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일부에 집중해 증가하였다. 특히 15~29세 청년층(24+59=83천 명)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246+199=445천 명)해 전체 취업자 수 변화를 주도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특히 15~19세는 인구가 73천 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가 24천 명 증가했고, 20~24세는 인구증가만큼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25~29세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인구감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30대는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그 중에서 30~34세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5천 명 증가했고, 40대는 인구감소에도 취업자가 45천 명 증가했다. 한편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인구증가를 넘는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 | | | | | 취업자 수 |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 | | | |
|--------|-----------------|------|------|-------------|-------------|-------------|--------|--------------------|-------------|-------------|-------------|
| | 연 도 | | | 1~10월 평균 | | | | 2014. 1~10월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 | |
| 전 체 | 416 | 437 | 386 | 461 | 348 | 554 | 25,584 | 522 | 527 | 410 | |
| 15~19세 | 22 | 4 | -7 | 3 | -8 | 24 | 248 | -50 | -31 | -73 | |
| 20대 | -58 | -40 | -44 | -31 | -62 | 59 | 3,624 | -34 | 66 | 31 | |
| 20~24세 | -11 | 89 | 29 | 89 | 23 | 86 | 1,357 | 131 | 154 | 83 | |
| 25~29세 | -47 | -129 | -73 | -120 | -85 | -27 | 2,267 | -165 | -88 | -52 | |
| 30대 | -47 | -31 | -21 | -31 | -20 | -19 | 5,712 | -109 | -68 | -112 | |
| 30~34세 | 44 | 79 | 57 | 77 | 70 | 15 | 2,909 | 41 | 54 | -44 | |
| 35~39세 | -91 | -110 | -78 | -108 | -90 | -34 | 2,804 | -150 | -122 | -67 | |
| 40대 | 57 | 11 | 22 | 15 | 15 | 45 | 6,679 | 17 | 25 | -19 | |
| 50대 | 291 | 270 | 254 | 281 | 248 | 246 | 5,830 | 315 | 260 | 210 | |
| 60세 이상 | 149 | 222 | 181 | 225 | 176 | 199 | 3,490 | 383 | 275 | 373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모든 성·연령대의 고용률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20대 증가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20~24세의 경우 남녀 고용률은 각각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여성(2.0%p)이 남성(1.2%p)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한편 25~29세는 2014년 상반기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 2014년 1~10월 평균 0.8%p 증가한 68.8%를 기록하였지만, 남성은 0.2%p 감소한 69.4%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2014년 4월 고점 이후 하락흐름으로 돌아선 반면, 남성은 하락흐름을 벗어나는 반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참조).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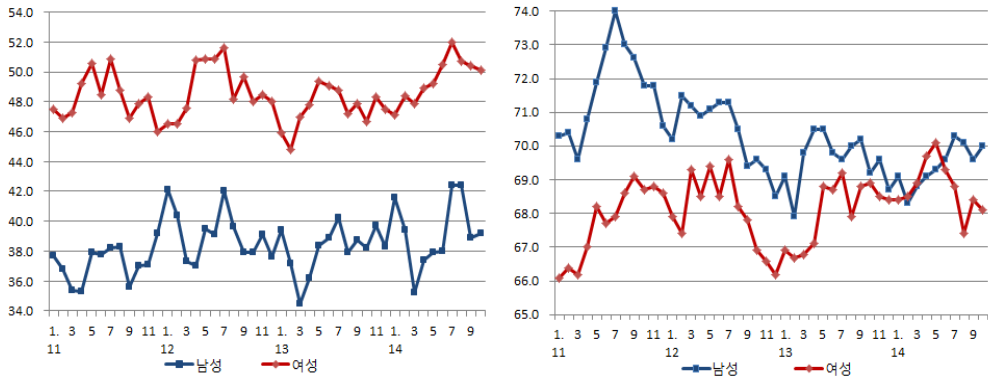
(단위 : %)

| | | 2011 | 2012 | 2011. 1~10월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전체 | 전 체 | 59.1 | 59.4 | 59.1 | 59.4 | 59.5 | 60.2 |
| | 15~19세 | 6.8 | 7.0 | 6.9 | 7.0 | 6.9 | 7.8 |
| | 20대 | 58.5 | 58.1 | 58.5 | 58.4 | 56.8 | 57.4 |
| | 20~24세 | 43.5 | 44.5 | 43.5 | 44.7 | 43.1 | 44.8 |
| | 25~29세 | 69.7 | 69.2 | 69.7 | 69.6 | 68.8 | 69.1 |
| | 30대 | 72.2 | 72.7 | 72.1 | 72.7 | 73.0 | 73.8 |
| | 30~34세 | 71.0 | 72.2 | 70.8 | 72.0 | 72.8 | 74.0 |
| | 35~39세 | 73.3 | 73.2 | 73.2 | 73.3 | 73.3 | 73.7 |
| | 40대 | 78.4 | 78.3 | 78.3 | 78.4 | 78.3 | 79.0 |
| | 50대 | 71.6 | 72.2 | 71.5 | 72.2 | 73.0 | 74.2 |
| | 60세 이상 | 36.5 | 37.5 | 36.7 | 37.7 | 38.5 | 39.1 |
| 남성 (여성) | 전 체 | 70.5 (48.1) | 70.8 (48.4) | 70.5 (48.1) | 70.8 (48.5) | 70.7 (48.8) | 71.4 (49.6) |
| | 15~19세 | 5.5 (8.1) | 5.7 (8.3) | 5.6 (8.2) | 5.9 (8.3) | 5.8 (8.0) | 6.9 (8.7) |
| | 20대 | 58.3 (58.7) | 57.3 (58.8) | 58.4 (58.7) | 57.6 (59.1) | 55.7 (57.8) | 55.8 (59.0) |
| | 20~24세 | 37.2 (48.2) | 39.1 (48.9) | 37.0 (48.5) | 39.3 (49.1) | 38.0 (47.5) | 39.2 (49.5) |
| | 25~29세 | 71.6 (67.8) | 70.4 (68.0) | 71.7 (67.6) | 70.7 (68.4) | 69.6 (68.0) | 69.4 (68.8) |
| | 30대 | 89.8 (53.7) | 90.3 (54.5) | 89.7 (53.5) | 90.3 (54.3) | 90.1 (55.4) | 90.9 (56.2) |
| | 30~34세 | 87.9 (53.2) | 89.0 (54.8) | 87.7 (53.0) | 89.0 (54.3) | 88.3 (56.7) | 89.8 (57.5) |
| | 35~39세 | 91.6 (54.1) | 91.7 (54.1) | 91.6 (54.0) | 91.6 (54.3) | 92.0 (54.0) | 92.1 (54.8) |
| | 40대 | 91.6 (64.9) | 91.7 (64.6) | 91.4 (64.9) | 91.7 (64.7) | 91.8 (64.5) | 92.7 (65.1) |
| | 50대 | 85.4 (57.7) | 86.3 (58.1) | 85.3 (57.7) | 86.3 (58.1) | 86.7 (59.4) | 87.5 (60.8) |
| | 60세 이상 | 49.3 (26.6) | 49.9 (27.9) | 49.5 (26.8) | 50.1 (28.1) | 51.1 (28.9) | 51.5 (29.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 20~24세 좌측, 25~29세 우측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30대와 40대는 고용률이 각각 0.8%p, 0.7%p 증가한 73.8%, 79.0%를 기록하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증가해 전체적인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50대의 경우 2013년 1~10월 대비 1.2%p 증가한 74.2%를 나타내었고, 여성에서 1.4%p 증가하고 남성에서 0.8%p 증가해 여성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4년 1~10월 평균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461천 명 증가와 임시직 140천 명 증가에 힘입어 560천 명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32천 명 증가하였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8천 명)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7천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2년 6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 2월(803천 명)에는 2010년 최고점을 넘는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폭이 둔화했으나 임시직의 증가에 힘입어 둔화속도가 늦춰졌다(그림 5 참조).

특히 종사상 지위별 특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용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2013년과는 달리, 2014년에는 상용직 증가폭은 가파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상용직 증가폭 둔화가 8월(323천 명 ↑) 저점을 기록한 이후 9월(324천 명 ↑), 10월(361천 명 ↑) 두 달 연속 증가하기 시작했고, 임시직 증가폭이 8월(213천 명 ↑)을 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9월(164천 명 ↑), 10월(95천 명 ↑)로 둔화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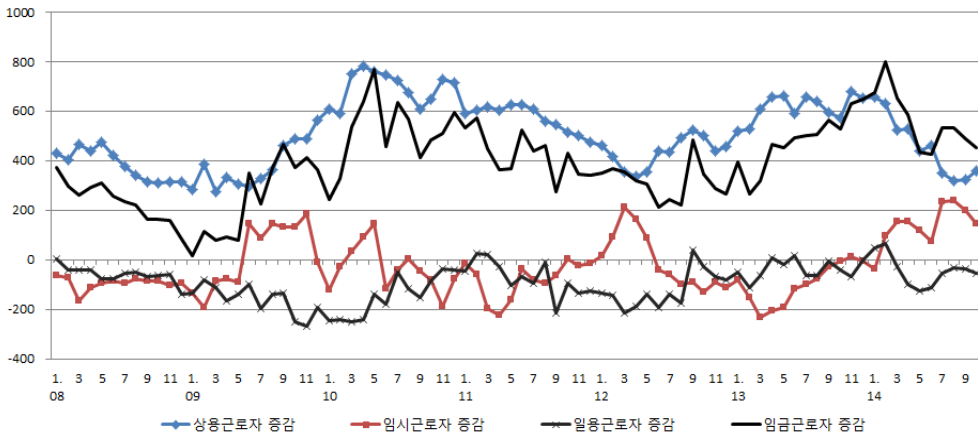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 연도별 증감 | | | 1~10월 평균 | | | |
|-------------|--------|------|------|-------------|-------------|-------------|-------------|
| | 2011 | 2012 | 2013 | 2011. 1~10월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전 체 | 416 | 436 | 386 | 406 | 461 | 348 | 554 |
| 임금 | 427 | 315 | 483 | 443 | 322 | 451 | 560 |
| 상용직 | 575 | 436 | 615 | 591 | 434 | 605 | 461 |
| 임시직 | -78 | -2 | -96 | -90 | 18 | -116 | 140 |
| 일용직 | -70 | -120 | -37 | -59 | -129 | -38 | -41 |
| 비임금 | -11 | 121 | -97 | -36 | 139 | -103 | -7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6 | 43 | -39 | -2 | 58 | -42 | 32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5 | 81 | -28 | -24 | 86 | -29 | -31 |
| 무급가족종사자 | -12 | -3 | -30 | -11 | -6 | -32 | -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50대(227천 명 ↑), 40대(109천 명 ↑), 15~24세(93천 명 ↑), 60세 이상(62천 명 ↑)이 주도하고 있으며, 30대는 1천 명 증가에 그쳤다. 20~25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상용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임시직 증가는 60세 이상(76천 명)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고, 15~24세(48천 명)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령대에 국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상용직과 임시직의 증가가 주되게 일어난 산업을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4년 1~10월 평균 제조업(215천 명 ↑)과 도소매업(98천 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표 5〉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 | | 전년대비 증감 | | | 전년동기대비 증감 | | |
|--------|------------|---------|------|------|----------------|----------------|----------------|
| |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15~24세 | 상용직 | 0 | 56 | 39 | 55 | 33 | 93 |
| | 임시직 | 26 | 39 | -16 | 43 | -17 | 48 |
| | 일용직 | -1 | 2 | -1 | -3 | 0 | -22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2 | 0 | 0 | 1 | -1 | 2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16 | 1 | -7 | 1 | -7 | -5 |
| | 무급가족종사자 | 0 | -5 | 7 | -5 | 7 | -6 |
| 25~29세 | 상용직 | 20 | -69 | -26 | -69 | -32 | -30 |
| | 임시직 | -57 | -47 | -37 | -41 | -37 | -20 |
| | 일용직 | -15 | -10 | 3 | -12 | 3 | 5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7 | 1 | -11 | 5 | -13 | -3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1 | -6 | 0 | -4 | -5 | 14 |
| | 무급가족종사자 | -3 | 2 | -1 | 1 | -2 | 7 |
| 30~39세 | 상용직 | 155 | 90 | 145 | 83 | 154 | 1 |
| | 임시직 | -90 | -86 | -113 | -74 | -129 | 8 |
| | 일용직 | -24 | -38 | -25 | -37 | -25 | -19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11 | -10 | -12 | -10 | -11 | 17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74 | 20 | -8 | 17 | -2 | -21 |
| | 무급가족종사자 | -3 | -7 | -8 | -9 | -7 | -6 |
| 40~49세 | 상용직 | 221 | 141 | 190 | 142 | 189 | 109 |
| | 임시직 | -37 | -39 | -28 | -42 | -29 | 1 |
| | 일용직 | -53 | -64 | -40 | -57 | -48 | -4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25 | 5 | -29 | 7 | -28 | -7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20 | -21 | -53 | -22 | -51 | -33 |
| | 무급가족종사자 | -28 | -11 | -18 | -13 | -19 | -20 |
| 50~59세 | 상용직 | 141 | 182 | 206 | 182 | 204 | 227 |
| | 임시직 | 67 | 54 | 17 | 56 | 20 | 26 |
| | 일용직 | -4 | -15 | 23 | -23 | 27 | -13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19 | 22 | 10 | 28 | 6 | 18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56 | 36 | -5 | 43 | -5 | -24 |
| | 무급가족종사자 | 11 | -9 | 2 | -5 | -3 | 12 |
| 60세 이상 | 상용직 | 38 | 37 | 61 | 41 | 56 | 62 |
| | 임시직 | 13 | 77 | 81 | 76 | 76 | 76 |
| | 일용직 | 27 | 5 | 3 | 4 | 6 | 13 |
| | 고용원 있는 자영자 | 15 | 26 | 4 | 27 | 5 | 5 |
| | 고용원 없는 자영자 | 47 | 51 | 44 | 52 | 42 | 37 |
| | 무급가족종사자 | 10 | 26 | -11 | 25 | -8 | 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업(87천 명 ↑)의 증가가 전체 상용직 증가의 변화를 이끌었고, 최근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등 일부 산업에서 상용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에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남녀 비중이 비슷하였다.

한편 큰 폭의 증가를 한 임시직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81천 명 ↑), 도소매업(46천 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2천 명 ↑)을 중심으로 늘어났고, 기타개인서비스업(31천 명 ↑), 교육서비스업(25천 명 ↑), 건설업(22천 명 ↑) 등 내수 중심으로 임시직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음식 및 숙박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중심으로 임시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증가 추세도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임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6〉 각 연도 1~10월 평균 상용직과 임시직의 업종별 증감 및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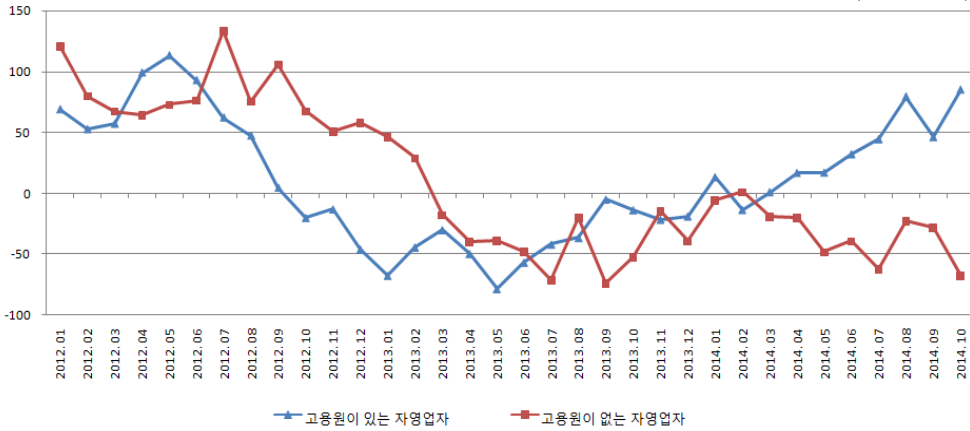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 상용직 | | | 임시직 | | |
|-------------------------|------|------|--------|------|------|-------|
| | 증감 | | 취업자 수 | 증감 | | 취업자 수 |
| | 2013 | 2014 | | 2013 | 2014 | |
| 농림어업 | 7 | 5 | 45 | -3 | -8 | 27 |
| 제조업 | 150 | 215 | 3,125 | -8 | -33 | 563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 15 | -11 | 72 | 2 | 0 | 7 |
| 하수 폐기물 처리 등 | -6 | 15 | 67 | 4 | -3 | 10 |
| 건설업 | 24 | 6 | 573 | -20 | 22 | 221 |
| 도소매업 | 59 | 98 | 1,187 | -53 | 46 | 877 |
| 운수업 | 16 | 20 | 598 | -9 | 3 | 136 |
| 숙박·음식점업 | 32 | 24 | 253 | 32 | 81 | 774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 | 15 | 580 | -10 | -8 | 60 |
| 금융·보험업 | 27 | -26 | 516 | -2 | 1 | 293 |
| 부동산 및 임대업 | 9 | 16 | 199 | 1 | 16 | 156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4 | -18 | 787 | -11 | 0 | 78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52 | -7 | 735 | 5 | -15 | 282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 | 9 | 743 | 6 | -10 | 214 |
| 교육서비스업 | 26 | 20 | 952 | -45 | 25 | 459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32 | 87 | 1,207 | -1 | 42 | 36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 | -7 | 99 | -3 | -4 | 105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39 | -8 | 373 | -10 | 31 | 329 |
| 기타 | -2 | 8 | 15 | 8 | -48 | 74 |
| 전 체 | 605 | 461 | 12,127 | -116 | 140 | 5,02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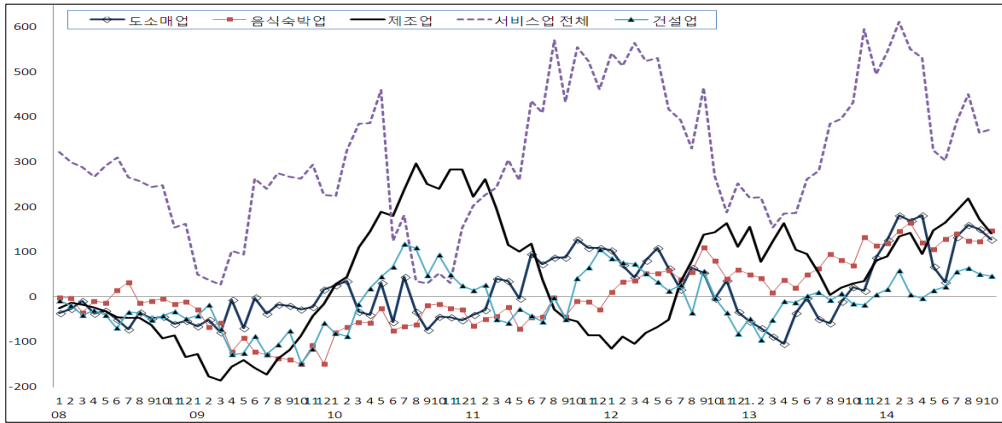
한편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 축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 9월 이후 장기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다 2014년 3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2014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8천 명 감소하는 수준에 그쳐, 2013년 1~10월의 감소규모보다 적은 수준에서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줄어들다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조업 고용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서비스업 고용 확대

2014년 1~10월 중에는 상용직 중심의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상용직(상반기) 및 임시직(하반기) 고용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체 고용의 증감폭을 좌우하였다. 제조업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1~9월 평균 151천 명 증가(10월 142천 명) 하였고, 서비스업은 1~9월 평균 453천 명 증가(10월 373천 명) 하는 등 전년인 2013년도에 비해 확대된 고용증가가 나타났다. 한편 농림어업의 경우 3월부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계속 감소폭이 확대되어 2분기 54천 명, 3분기 121천 명 감소하는 등 1~10월 중 64천 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건설업에서는 임시직 중심으로 2014년 1~10월 중 34천 명(상용직 6천 명, 임시직 22천 명)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1~10월중 총 402천 명)이 주도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14년의 고용확대가 나타났다.

[그림 7]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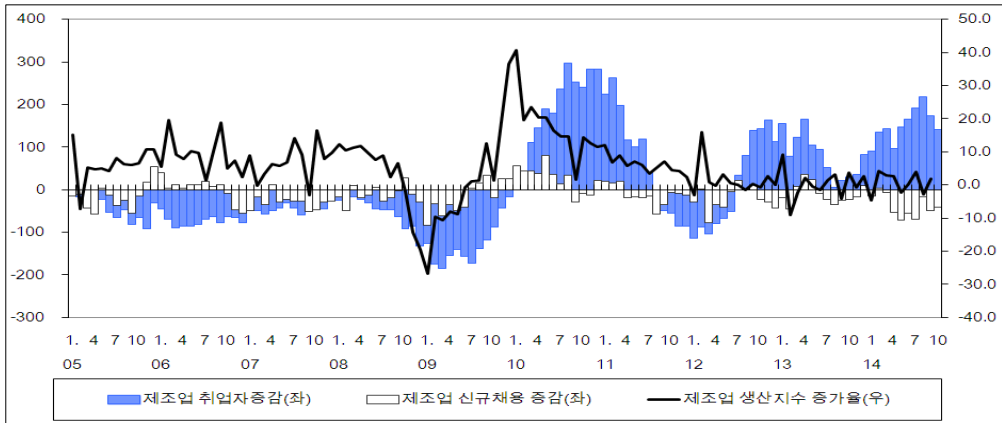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취업자 전체 | 145 | -72 | 323 | 415 | 436 | 386 | 461 | 348 | 554 |
| 농업·임업 및 어업 | -37 | -38 | -82 | -25 | -14 | -8 | -18 | -4 | -64 |
| 전기·가스 등 | 4 | 5 | -17 | -3 | 0 | 14 | -2 | 16 | -10 |
| 건설업 | -37 | -91 | 33 | -2 | 22 | -19 | 38 | -22 | 34 |
| 제조업 | -52 | -126 | 191 | 63 | 14 | 79 | -11 | 83 | 150 |
| 서비스업 | 260 | 179 | 200 | 386 | 416 | 318 | 455 | 273 | 445 |
| 도매 및 소매업 | -41 | -32 | -20 | 58 | 51 | -29 | 61 | -45 | 133 |
| 운수업 | 1 | -1 | 33 | 52 | 48 | 34 | 48 | 33 | -3 |
| 숙박 및 음식점업 | -5 | -107 | -47 | -36 | 53 | 64 | 53 | 52 | 133 |
| 출판·영상·방송 등 | -7 | 25 | 16 | 35 | -3 | -8 | 6 | -11 | 21 |
| 금융 및 보험업 | 15 | -55 | 42 | 38 | -4 | 22 | 0 | 23 | -23 |
| 부동산 및 임대업 | -17 | 12 | 17 | -31 | 0 | -1 | -1 | -4 | 26 |
| 전문·과학 등 | 55 | 87 | 40 | 77 | 67 | -6 | 72 | -5 | 2 |
| 사업시설관리 등 | 20 | -29 | 78 | 64 | 30 | 57 | 23 | 64 | 0 |
| 공공행정·국방 등 | 43 | 191 | -71 | -9 | 0 | 14 | 7 | 8 | 0 |
| 교육서비스업 | 44 | 48 | -33 | -113 | 58 | 4 | 65 | -1 | 58 |
| 보건·사회복지 등 | 103 | 156 | 155 | 158 | 88 | 155 | 90 | 148 | 136 |
| 예술·스포츠 등 | 48 | -28 | -11 | 37 | -8 | -17 | -5 | -24 | 0 |
| 협회 등 | 6 | -86 | 5 | 45 | 25 | 26 | 24 | 29 | -4 |
| 공공 | 43 | 191 | -71 | -9 | 0 | 14 | 7 | 8 | 0 |
| 민간 | 101 | -263 | 395 | 424 | 436 | 372 | 454 | 340 | 55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8] 제조업 생산증가율·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표 8> 제조업 취업자의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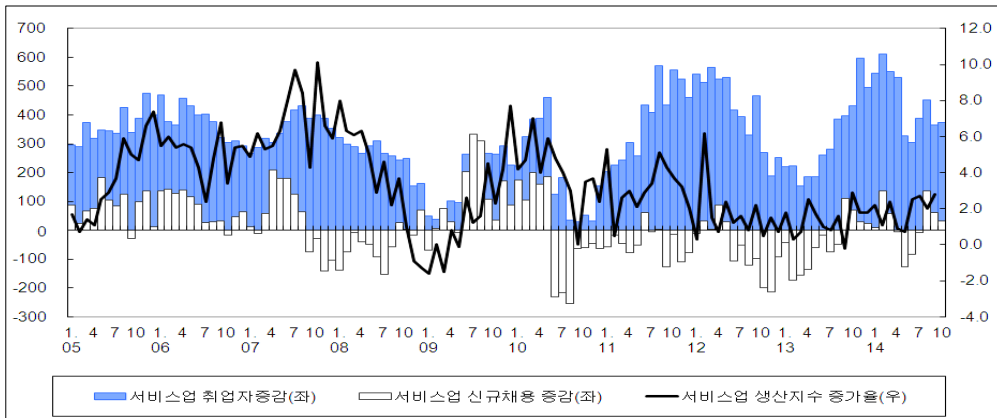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제조업 취업자 전체 | | -52 | -126 | 191 | 63 | 14 | 79 | -11 | 83 | 150 |
| 신규채용 | | -12 | -18 | 26 | -11 | -20 | -10 | -17 | -11 | -37 |
| 종사상 지위별 | 임금근로자 | -49 | -96 | 162 | 69 | 40 | 119 | 16 | 124 | 165 |
| | 상용직 | 9 | 10 | 184 | 110 | 84 | 152 | 68 | 150 | 215 |
| | 20대 | -54 | -31 | 24 | -10 | -12 | -23 | -16 | -23 | 22 |
| | 50세 이상 | 37 | 31 | 55 | 44 | 53 | 82 | 52 | 78 | 96 |
| | 임시직 | -49 | -73 | 4 | -37 | -18 | -14 | -22 | -8 | -33 |
| | 일용직 | -9 | -33 | -26 | -4 | -26 | -19 | -30 | -17 | -17 |
| | 비임금근로자 | -3 | -30 | 29 | -6 | -26 | -40 | -27 | -41 | -15 |
| |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 -13 | -9 | 11 | 2 | -7 | -16 | -6 | -18 | -9 |
| |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 12 | -18 | -4 | -3 | -6 | -12 | -7 | -12 | 3 |
| 무급가족종사자 | -2 | -3 | 22 | -5 | -12 | -12 | -14 | -12 | -9 | |
| 성별 | 남자 | -14 | -16 | 115 | 26 | 19 | 92 | 0 | 98 | 107 |
| | 여자 | -37 | -110 | 76 | 37 | -5 | -12 | -10 | -15 | 43 |
| 연령별 | 20대 | -71 | -47 | 24 | -19 | -26 | -26 | -28 | -27 | 22 |
| | 20~24세 | -44 | -3 | 11 | -16 | 13 | 18 | 12 | 18 | 10 |
| | 25~29세 | -27 | -44 | 13 | -4 | -38 | -45 | -41 | -45 | 11 |
| | 30대 | -27 | -40 | 12 | 0 | -23 | 74 | -39 | 77 | 22 |
| | 30~34세 | 5 | -8 | 15 | 21 | 17 | 49 | 7 | 54 | -19 |
| | 35~39세 | -32 | -32 | -3 | -21 | -39 | 25 | -46 | 23 | 41 |
| | 40대 | -20 | -42 | 38 | 20 | -3 | -43 | -6 | -40 | 12 |
| | 50대 | 57 | 27 | 92 | 46 | 49 | 60 | 48 | 55 | 100 |
| 60세 이상 | 13 | -21 | 19 | 15 | 16 | 12 | 13 | 17 | -10 | |
| 사업체 규모별 | 300인 미만 | -8 | -67 | 206 | 76 | -41 | 39 | -55 | 41 | 82 |
| | 300인 이상 | -44 | -60 | -14 | -13 | 55 | 41 | 45 | 43 | 6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1~9월 평균 151천 명(10월은 142천 명) 증가하여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이다. 2014년 중 제조업은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종사상 지위의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이때 1~10월 중 150천 명 증가한 제조업 전체 취업자 중 145천 명이 남성 상용직이었으며, 이 중 118천 명이 40·5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신규채용은 2013년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4년 1~10월 중에는 3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제조업 취업자들의 이직 감소가 취업자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9] 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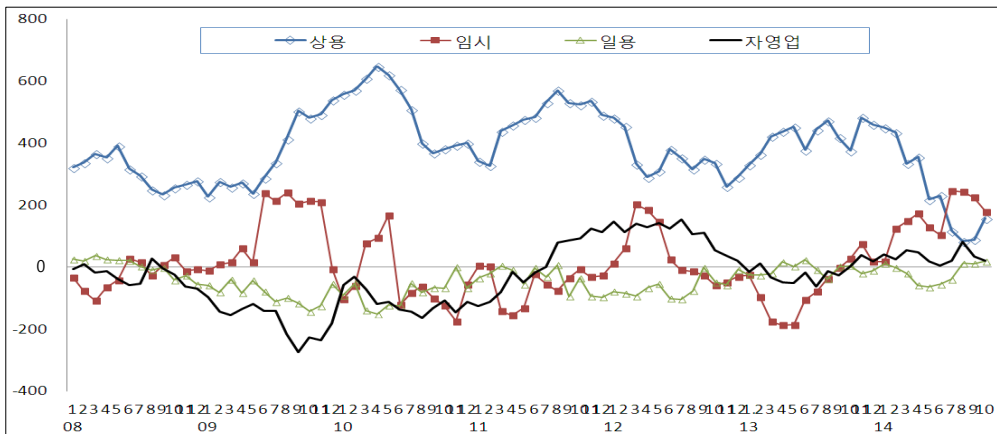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그림 10] 서비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회복 국면에서 제조업 고용은 생산증감에 대한 뚜렷한 후행반응을 보였으나, 2013년 하반기 들어서는 이렇다 할 생산의 상승·하락 국면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생산과의 연계성이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수출 둔화 등 여건악화와 고용증가 둔화가 지속될 경우 2014년 중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제조업 고용이 향후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표 9〉 서비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 | 260 | 179 | 200 | 386 | 416 | 318 | 455 | 273 | 445 |
| 신규채용 | | -44 | 106 | -10 | -44 | -62 | -39 | -44 | -52 | 21 |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 | 281 | 390 | 371 | 379 | 317 | 346 | 340 | 314 | 385 |
| | 상용직 | 305 | 360 | 502 | 475 | 345 | 419 | 360 | 409 | 246 |
| | 임시직 | -25 | 116 | -46 | -57 | 36 | -65 | 52 | -87 | 158 |
| | 50세 이상 | 34 | 136 | 25 | 63 | 116 | 86 | 117 | 81 | 97 |
| | 일용직 | 1 | -87 | -85 | -39 | -65 | -9 | -72 | -7 | -19 |
| | 비임금근로자 | -22 | -212 | -171 | 7 | 99 | -27 | 116 | -42 | 60 |
| |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 4 | 9 | -33 | 6 | 52 | -12 | 65 | -15 | 39 |
| |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 -31 | -182 | -78 | 2 | 53 | -4 | 56 | -11 | -5 |
| | 무급가족종사자 | 5 | -39 | -59 | 0 | -6 | -11 | -6 | -16 | 25 |
| 성별 | 남자 | 147 | 113 | 79 | 236 | 175 | 93 | 206 | 60 | 194 |
| | 여자 | 112 | 66 | 121 | 150 | 241 | 225 | 250 | 212 | 251 |
| 연령별 | 20대 | -26 | -55 | -79 | -21 | -22 | -8 | -14 | -23 | 37 |
| | 20~24세 | -39 | -32 | -26 | 5 | 75 | 8 | 74 | 4 | 78 |
| | 25~29세 | 13 | -23 | -53 | -26 | -97 | -16 | -88 | -27 | -41 |
| | 30대 | 26 | -97 | 21 | 1 | 26 | -76 | 41 | -81 | -8 |
| | 30~34세 | -37 | -39 | 59 | 39 | 64 | 22 | 70 | 28 | 37 |
| | 35~39세 | 63 | -59 | -37 | -38 | -38 | -98 | -28 | -108 | -45 |
| | 40대 | 127 | 74 | 23 | 56 | 36 | 95 | 35 | 88 | 52 |
| | 50대 | 131 | 157 | 164 | 214 | 212 | 184 | 221 | 183 | 134 |
| 60세 이상 | 16 | 109 | 51 | 113 | 164 | 132 | 173 | 117 | 210 | |
| 산업별 | 도소매업 | -41 | -32 | -20 | 58 | 51 | -29 | 61 | -45 | 133 |
| | 음식숙박업 | -5 | -107 | -47 | -36 | 53 | 64 | 53 | 52 | 133 |
| | 보건·사회복지업 | 103 | 156 | 155 | 158 | 88 | 155 | 90 | 148 | 136 |
| | 교육서비스업 | 44 | 48 | -33 | -113 | 58 | 4 | 65 | -1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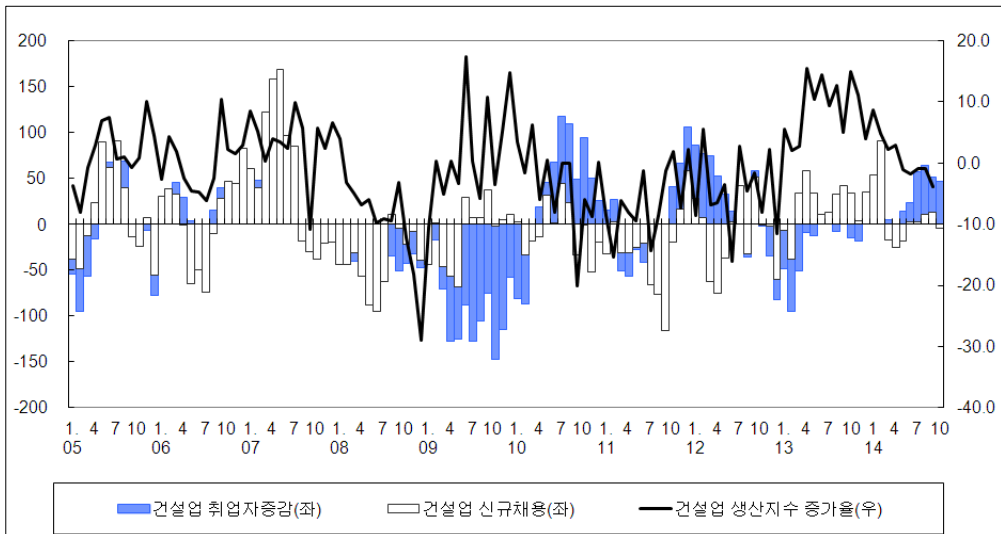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4년 1~10월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133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6천 명, 교육서비스업이 58천 명 증가하여, 이들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서비스업은 445천 명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고용을 주도한 계층은 50세 이상 연령층(343천 명)이었다.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은 2014년 상반기 중에는 상용직(151천 명)이 임시직(108천 명)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하반기 들어서는 상용직(79천 명)보다 임시직(157천 명) 증가폭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2013년 전체 고용증가분 155천 명 중 상용직(133천 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14년 1~10월 중에는 전체 136천 명 중 상용직 87천 명, 임시직 42천 명 증가로 임시직의 고용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업의 2014년 임시직은 1~10월 중 158천 명이 늘었는데, 주로 50세 이상 연령층(97천 명) 과 15~29세 연령층(34천 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중 서비스업 부문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업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권 및 보험사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반기 평균 취업자가 44천 명 감소한(1~10월 평균 23천 명 감소) 금융 및 보험업이 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의 경우 50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1~10월 중 57천 명 감소하였다. 운수업에서는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14년 3월부터 취업자가 감소하여 3분기 중에는 26천 명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1~8월 중 둔화되던 상용직 증가폭은 다시 9월부터 확대되어 10월에는 10만 명 이상 증가한 반면, 임시직 취업자는 8월을 정점으로 점차 증가

[그림 11] 건설업 성장률 및 취업자증가를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건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건설업 취업자 전체 | | -37 | -91 | 33 | -2 | 22 | -19 | 38 | -22 | 34 |
| 신규채용 | | -40 | -10 | -6 | -28 | -12 | 21 | -8 | 21 | 11 |
| 종사상 지위별 | 임금근로자 | -1 | -59 | 1 | -14 | -19 | 8 | -7 | 0 | 28 |
| | 상용직 | 55 | 11 | 20 | -7 | 11 | 24 | 14 | 24 | 6 |
| | 임시직 | -13 | -30 | 10 | 20 | -18 | -16 | -11 | -20 | 22 |
| | 일용직 | -43 | -40 | -29 | -28 | -12 | 0 | -11 | -4 | -1 |
| | 비임금근로자 | -37 | -32 | 32 | 12 | 41 | -27 | 46 | -22 | 6 |
| |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 -20 | -20 | 5 | 4 | 5 | -15 | 5 | -13 | 5 |
| |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 -17 | -12 | 25 | 8 | 33 | -8 | 37 | -5 | 1 |
| | 무급가족종사자 | 0 | 0 | 1 | 0 | 3 | -4 | 3 | -4 | 0 |
| 사업체 규모별 | 300인 미만 | -48 | -102 | 44 | 2 | 18 | -20 | 34 | -23 | 43 |
| | 300인 이상 | 11 | 11 | -11 | -5 | 4 | 1 | 4 | 2 | -1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폭이 다시 둔화되는 양상(그림 10 참조)이므로 서비스업 고용이 다시 2009~2013년과 같이 상용직 주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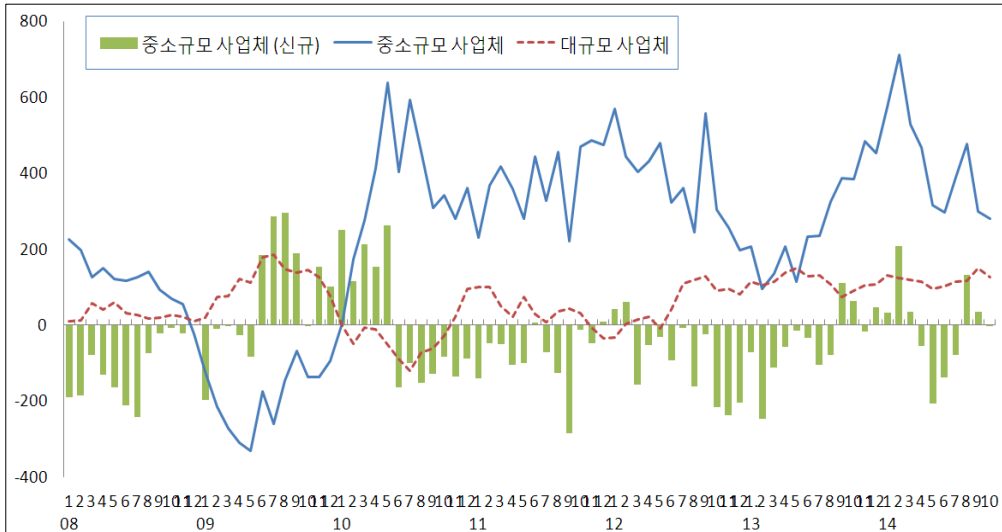
건설업은 2014년 중 생산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을 중심으로 1~10월 중 34만 명 증가하였다. 건설업 고용을 주도한 집단은 임시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 중 대부분에 해당되는 27만 명이 50세 이상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의 신규채용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5만 명 증가하여 1~10월 평균 1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고용은 감소하는 중에도 신규채용은 평균 21만 명 증가하였던 2013년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건설부문의 생산증가율이 향후에도 계속 둔화세를 이어갈 경우 건설업 고용사정은 올해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증가, 신규채용은 여전히 부진

2014년 1~10월 중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꾸준히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434천 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554천 명 증가를 견인하였다. 대규모 사업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69천 명과 62천 명으로 균형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취업이 주도

[그림 12]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여 1~10월 중 전체 434천 명 중 383천 명을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한 한편, 농림어업(-65천 명), 가구내 고용활동(-57천 명), 금융 및 보험업(-26천 명) 등의 업종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11>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전체 취업자 | | 145 | -72 | 323 | 415 | 436 | 386 | 461 | 348 | 554 |
| 300인 미만 | 전 체 | 117 | -189 | 354 | 378 | 381 | 272 | 412 | 233 | 434 |
| | 신규취업자 | -110 | 74 | 12 | -81 | -90 | -43 | -64 | -54 | -3 |
| | 도소매업 | -38 | -26 | -7 | 57 | 58 | -29 | 66 | -43 | 116 |
| | 음식숙박업 | 5 | -108 | -52 | -40 | 54 | 62 | 54 | 50 | 129 |
| | 보건 및 사회복지 | 89 | 155 | 156 | 151 | 89 | 129 | 91 | 122 | 127 |
| 300인 이상 | 전 체 | 28 | 117 | -31 | 37 | 55 | 114 | 49 | 115 | 120 |
| | 신규취업자 | 5 | 16 | -2 | 0 | -18 | 5 | -20 | 4 | -10 |
| | 제조업 | -44 | -60 | -14 | -13 | 55 | 41 | 45 | 43 | 69 |
| | 전체 서비스업 | 61 | 163 | 0 | 57 | -1 | 62 | 4 | 60 | 62 |
| 건설업 | | 11 | 11 | -11 | -5 | 4 | 1 | 4 | 2 | -1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금근로자 중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신규채용으로 보았을 때, 2014년 1~10월 중 신규채용 양상은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13천 명 감소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은 50세 이상 중고령층(44천 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1~10월 중 26천 명이 감소하였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신규채용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25천 명) 등을 중심으로 임시직 신규채용만 12천 명 증가하였다. 제조업에서는 2014년 3월 이후 현재까지 8개월 연속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1~10월 평균 37천 명이 감소하였다. 서비스 부문 중 2014년 중 신규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4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천 명), 음식숙박업(15천 명)이었는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19천 명이 일용직 여성이었다. 서비스업의 상용직 신규채용은 1~10월 중 1천 명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8~10월 들어서는 음식숙박업(15천 명)과 도소매업(10천 명)으로 다소 회복하는 등 서비스 부문에 걸쳐 다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신규채용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 신규채용은 최근 3개월간 증가폭이 둔화되어 향후 추이가 불투명하다.

〈표 12〉 임금근로자의 근속연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2. 1~10월 | 2013. 1~10월 | 2014. 1~10월 |
|------------|-----------|------|------|------|------|------|------|----------------|----------------|----------------|
| 임금 근로자 | 전 체 | 236 | 247 | 517 | 426 | 315 | 483 | 322 | 451 | 560 |
| | 3개월 미만 | -105 | 90 | 10 | -81 | -108 | -37 | -84 | -50 | -13 |
| | 3개월~1년 미만 | -31 | -19 | 171 | -48 | 17 | -75 | 25 | -115 | 26 |
| | 1년 이상 | 372 | 176 | 336 | 555 | 406 | 594 | 381 | 616 | 547 |
| 신규채용 규모 | 제조업 | -12 | -18 | 26 | -11 | -20 | -10 | -17 | -11 | -37 |
| | 서비스업 | -44 | 106 | -10 | -44 | -62 | -39 | -44 | -52 | 21 |
| | 음식숙박업 | -7 | -14 | -5 | -10 | -3 | 11 | 1 | 7 | 15 |
| | 보건사회복지 | 9 | 32 | 17 | 13 | -4 | -2 | -3 | -5 | 19 |
| | 협회 및 단체 등 | -2 | 4 | 1 | 1 | -1 | -1 | -1 | -2 | 24 |
| | 건설업 | -40 | -10 | -6 | -28 | -12 | 21 | -8 | 21 | 11 |
| | 중소규모 사업체 | -110 | 74 | 12 | -81 | -90 | -43 | -64 | -54 | -3 |
| | 대규모 사업체 | 5 | 16 | -2 | 0 | -18 | 5 | -20 | 4 | -10 |
| | 상용직 | 8 | 9 | 66 | 29 | -5 | 0 | 8 | -11 | -8 |
| | 임시직 | -36 | 136 | 24 | -83 | -56 | -48 | -48 | -50 | 12 |
| | 일용직 | -77 | -55 | -81 | -27 | -47 | 11 | -43 | 11 | -18 |
| | 20·30대 | -68 | 15 | -32 | -66 | -95 | -22 | -85 | -34 | -26 |
| | 50세 이상 | -4 | 88 | 46 | 16 | 37 | 11 | 43 | 13 | 44 |

주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2015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2014년 1월에는 4.0%를 전망한 후, 4월에는 4.2%로 상향조정한 뒤 다시 하향조정을 거듭하여 가장 최근인 10월 전망에서는 연간 3.9%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4년 1분기 중 정점을 통과한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악화되는 대외여건과 국내의 소비 개선 미흡, 투자 부진 등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표 13〉 한국은행 2014년, 2015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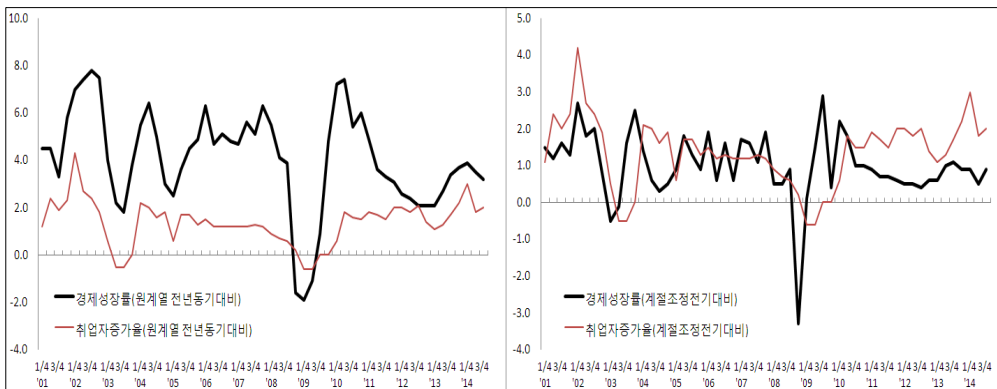
(단위: %, 만 명)

| | 2014. 1 | | | 2014. 4 | | | 2014. 7 | | | 2014. 10 | | | | | | | | |
|---------|---------|--------|--------|---------|--------|--------|---------|--------|--------|----------|--------|--------|--------|--------|-----|-----|-----|-----|
| | 2014 | | 2015 | 2014 | | 2015 | 2014 | | 2015 | 2014 | | 2015 | | | | | | |
| | 상 반 | 하 반 | 연 간 | 연 간 | 상 반 | 하 반 | 연 간 | 연 간 | 상 반 | 하 반 | 연 간 | 상 반 | 하 반 | 연 간 | | | | |
| 세계경제성장률 | 3.6 | 3.7 | 3.6 | 4.0 | 3.5 | 3.7 | 3.6 | 3.9 | 3.1 | 3.4 | 3.3 | 3.9 | 3.2 | 3.3 | 3.2 | - | - | 3.8 |
| 경제성장률 | 3.9 | 3.7 | 3.8 | 4.0 | 3.9 | 4.0 | 4.0 | 4.2 | 3.8 | 3.8 | 3.8 | 4.0 | 3.7 | 3.3 | 3.5 | 3.7 | 4.1 | 3.9 |
| 민간소비 | 3.4 | 3.4 | 3.4 | 3.8 | 2.9 | 3.2 | 3.1 | 3.7 | 2.1 | 2.6 | 2.3 | 3.6 | 2.0 | 1.9 | 2.0 | 3.3 | 3.6 | 3.5 |
| 수출 | 4.7 | 9.7 | 7.2 | 8.7 | 4.5 | 8.4 | 6.5 | 8.3 | 3.9 | 8.2 | 6.1 | 7.5 | 3.7 | 4.3 | 4.0 | 5.4 | 5.6 | 5.5 |
| 취업자 수 | 46 | 39 | 43 | 45 | 63 | 38 | 50 | 45 | 61 | 36 | 48 | 43 | 60 | 41 | 50 | 39 | 50 | 45 |
| 실업률 | 3.2 | 2.9 | 3.0 | 3.0 | 3.5 | 2.9 | 3.2 | 3.1 | 3.8 | 3.2 | 3.5 | 3.3 | 3.8 | 3.2 | 3.5 | 3.6 | 3.1 | 3.3 |

주: 한국은행 20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3.3%를 기록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그림 13〕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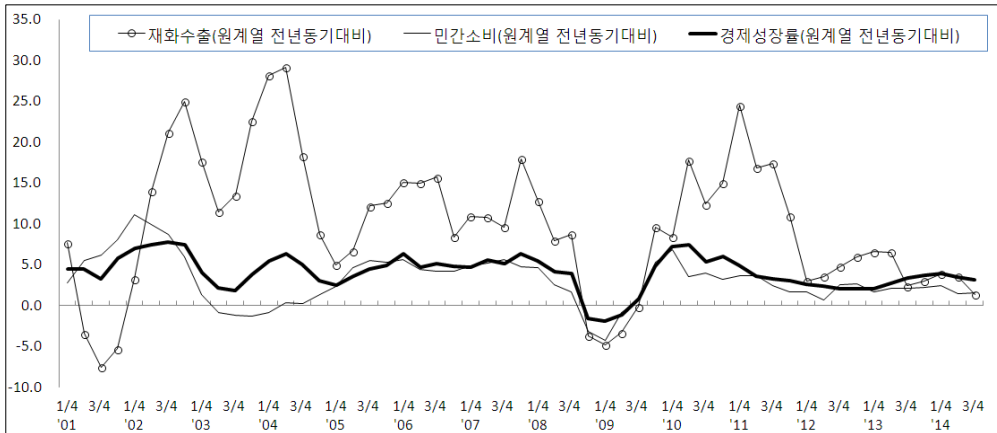
(단위: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14)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고용사정과 경제성장의 개선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유럽지역의 성장세 약화와 중국의 구조개혁으로 인해 2015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8%로 기존에 비해 하향조정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수출에 비해 대내적으로 내수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제약하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존재하며, 국내적으로는 투자심리 회복 지연,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재정균형 불안 등이 존재한다.

2014년 1분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후행적인 반응을 보인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597천 명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취업자 증가를 보이다가 3분기 들어서는 517천 명으로 조정되는 양상이다. 경기둔화가 금년 하반기·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를 전제하면 4분기 중 취업자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어 2014년 연간으로는 524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예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시장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폭의 둔화와 임시직 증가폭의 확대,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임시직은 2014년 중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부문 전반에 걸쳐 취업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10월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고 서비스업에서도 임시직 증가폭이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상용직의 장기적인 증가추세로의 복귀 신호가 될지 여부는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년 초반의 높았던 상용직 증가폭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4〉 2014년 하반기, 2015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 | 2014 | | | 2015 | | |
|-----------|--------|--------|--------|--------|--------|--------|
| | 상반 | 하반p | 연간p | 상반p | 하반p | 연간p |
| 경제성장률 | 3.7 | 3.3 | 3.5 | 3.7 | 4.1 | 3.9 |
| 15세 이상 인구 | 42,397 | 42,614 | 42,505 | 42,816 | 43,043 | 42,929 |
| 경제활동인구 | 26,356 | 26,680 | 26,518 | 26,739 | 27,094 | 26,917 |
| 경제활동참가율 | 62.2 | 62.6 | 62.4 | 62.5 | 62.9 | 62.7 |
| 취업자 | 25,352 | 25,829 | 25,590 | 25,753 | 26,267 | 26,010 |
| (증가율) | 2.4 | 1.8 | 2.1 | 1.6 | 1.7 | 1.6 |
| (증감수) | 597 | 451 | 524 | 402 | 439 | 420 |
| 실업자 | 1,004 | 851 | 928 | 986 | 827 | 906 |
| 실업률 | 3.8 | 3.2 | 3.5 | 3.7 | 3.1 | 3.4 |
| 고용률 | 59.8 | 60.6 | 60.2 | 60.1 | 61.0 | 60.6 |
| 비경제활동인구 | 16,041 | 15,934 | 15,988 | 16,076 | 15,948 | 16,012 |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15〉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 명, %)

| | 고용증감 | 경제성장률 | 취업자 증가율 | 고용탄력성 |
|-------|------|-------|---------|--------|
| 2001 | 416 | 4.5 | 2.0 | 0.437 |
| 2002 | 597 | 7.4 | 2.8 | 0.374 |
| 2003 | -30 | 2.9 | -0.1 | -0.047 |
| 2004 | 418 | 4.9 | 1.9 | 0.385 |
| 2005 | 299 | 3.9 | 1.3 | 0.340 |
| 2006 | 295 | 5.2 | 1.3 | 0.248 |
| 2007 | 282 | 5.5 | 1.2 | 0.221 |
| 2008 | 144 | 2.8 | 0.6 | 0.219 |
| 2009 | -71 | 0.7 | -0.3 | -0.430 |
| 2010 | 323 | 6.5 | 1.4 | 0.211 |
| 2011 | 415 | 3.7 | 1.7 | 0.471 |
| 2012 | 437 | 2.3 | 1.8 | 0.784 |
| 2013 | 385 | 3.0 | 1.6 | 0.520 |
| 2014p | 524 | 3.5 | 2.1 | 0.597 |

주: 2014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014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내년부터 다시 회복으로 돌아서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015년 상반기 3.7%, 하반기 4.1%를 전제로 할 경우,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 하반기 하락과 내년 중 경기 회복에 대한 후행 반응으로 상반기 중 402천 명, 하반기 439천 명 (연간 420천 명, 전년대비 1.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연간 실업률은 전년보다 0.1%p 낮아진 3.4%, 고용률은 0.4%p 높아진 60.6%가 전망된다. [KLI]